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의 혁신기업 발굴과 육성에 협력 나서

- 9월 14일, 양 기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경기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등 협력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9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원허브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혁신기업 육성 및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 경기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 테스트베드 지원 및 제도 연계 운영 ▲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지원제도 운영 및 확산 노력 ▲ 기업 성장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실증 및 창업지원제도 연계 운영 등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국가 K-테스트베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지원과 기술 개발 및 실증, 판로 확대,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등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사업 기반 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별 창업지원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이 더해져 혁신 창업생태계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초기 창업 활성화에 집중하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투자자)로 등록된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하나로 지역의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창업·벤처 지원 수단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에 기반을 둔 유망기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지원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히고, 지역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2매(별첨). 끝.

담당 부서	기후테크혁신처 K-테스트베드부	책임자	부 장	김진석 (042-629-2530)
		담당자	차 장	김경완 (042-629-2531)





[사진] 1. 2026년 9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원허브에서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사진 오른쪽)과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경기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2. 2026년 9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원허브에서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사진 가운데 왼쪽)과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대표들이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을 기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경기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